

중국 군안진 - 진즈 웨어의 브랜드 전개도 활발

중국 광둥성(廣東省) 순덕시(順德市) 군안진(均安鎮)은 1970년대부터 진즈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불과 20여년만에 군안진 전체를 진즈 산업의 일대 기간 산업(一大基幹産業)으로 발전시켰다. 2004년 1월에 중국의 방직공업협회는 군안진에게 “중국 진즈 웨어의 거리”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군안진에는 방직·어패럴 기업이 1,000개사 넘게 있으며, 종업원 수는 약 9만 명에 이르고, 제품의 품질이 많이 향상되면서 브랜드 전개도 활발하게 되어 현재 브랜드 수가 약 1,000개 정도로 증가하였다. “SEBORN(西布朗)”, “Harley Boy(哈利少年)”, “파투사(披頭士)”, “AD-LO(愛得樂)”, “CIKELON(雪基龍)” 등은 군안진을 대표할 만한 어패럴 브랜드로서, 중국에서는 지명도가 높다. 이외에도 “월마트(Wal-mart)”나 “리(LEE)”, “리바이스(LEVIS)”, “말보르(Marlboro)” 등의 많은 유명 브랜드 메이커로부터 OEM 방식의 가공 생산 주문을 받고 있으며, 군안진 전체로서 제품 수출률은 전체 생산량의 80%에 이르고 있다.

군안진은 20년만에 이 수준으로까지 급격히 발전할 수 있던 배경에는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군안진의 진즈 가공업이 초기에 홍콩에서 가동되고 있던 생산 시설을 상당수 그대로 옮겨와 가동되기 시작함으로써, 스타트 시점부터 사업이 국제 시장으로 직결되었으며, 입지 조건은 홍콩에 인접해 있어 최고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맹함으로써 쿼터 제한이 유연해진 것도 군안진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군안진 내 및 그 주변에는 20여개의 수세 공장에서 진즈를 가공하고 있어, 산업 연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미 군안진 일대에서 원·재료 생산부터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군안진 내에는 방직·어패럴 연구 개발 센터가 설립되어, 전문가나 기업가를 초빙하여 연구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다양한 자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ISO 9000, ISO 14000 인증 신청 등을 지원해 주고 기업의 자질 향상을 각종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후원해 주기도 하고 있다. ♣